

Better Days

한국은 지난 40년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모순이 생겨났는데, 그중 하나가 긴 노동 시간 끝에 주어지는 짧은 휴가다. 먼 곳으로 떠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힘든 사람들은 긴 여행 대신에 주로 도시 주변에 머물면서 일상의 피로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시공간적 한계 속에서의 휴식은 '집단적 여가'라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으로 이어지고, 한국인 특유의 쿨(cool)한 '적응력'과 '빨리빨리'로 불리는 '기민함', 그리고 '공동체 지향적 개인주의'라는 오랜 사회적 신뢰를 드러내며 한국 사회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Better Days

Korea has been developed rapidly over 40 years, which caused a lot of social ironies. One of the ironies is long working hours with a very short period of break. During holidays, Koreans try their best to enjoy it, but due to lack of time to travel, they spend time mostly around the city. This collective leisure in the contradictory situation implicitly shows Korean society by revealing cool "adaptation," "quickness" called "Pali Pali" and "community-oriented individualism,"